

구성	주요내용
NHI Inside(9)	☐ 민간경력 신임사무관 58명 공직에 첫 발 - 제65기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 온라인 수료식 개최
	☐ 7급 신규공무원, 합동 온라인 입교식 개최 - 정세균 국무총리, 영상 축하에서 “공무원 역량 중요성” 강조
	☐ 공직 선·후배 멘토링, 교육지도도 온라인 진행 - 고위공무원과 예비사무관 간 온라인 교류·소통 프로그램 운영
	☐ 제7기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 수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직에서 많은 활약 기대
	☐ 예비사무관 340명, 공직에 첫 걸음 내딛는다 - 2020년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온라인 입교식 개최
	☐ 민간 출신 공무원, 맞춤형 교육 통해 공직리더로 - 직무지식·리더십 위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워크숍’ 개최
	☐ 민간 출신 국·과장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개설 - 나라배움터 통해 ‘개방형직위 공직입문과정’ 첫 제공
	☐ 예비 사무관 정책교육,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 - 실제 정책 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보고서 실습 등 진행
	☐ 5급 사무관 승진 교육, 부처별 맞춤형으로 개편 - 선택 심화교과 도입으로 현장·실무형 중간관리자 역할 기대
NHI News(7)	☐ 공공HRD 우수강사 풀 공유, 공동활용에 나서 - 나라배움터 우수강사정보 커뮤니티 개설
	☐ 지역 주민에 온라인 학습 서비스 대폭 확대 - 교육 대상 확대 및 콘텐츠 강화, ‘2020 나라배움터 빌리지’ 개시
	☐ 나도 NHI 명예기자 공모전 당선작 발표 - 교육생·지역주민·교직원 수기 공모
	☐ 상반기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대학교와 MOU체결 - 4차 산업혁명시대 정책대응역량을 갖춘 국가핵심인재 육성에 뜻 모아
	☐ ‘내가 만든 마이크로러닝’ 공모전 개최 - 5분 내외 학습자료 직접 제작해 공유, 매달 우수작 선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공유 - 제71회 민·관 발전 실무협의회 개최
NHI Column(3)	☐ 배움을 집안에서 - NHI명예기자 공모전 당선작
	☐ 이제는 K-인재다 - NHI명예기자 공모전 당선작
	☐ 현재 우리의 시간은 따로 또 같이 - NHI명예기자 공모전 당선작
기 타(1)	☐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민간경력 신임사무관 58명 공직에 '첫 발'

— 제65기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 온라인 수료식 개최 —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8명이 '20.2.17.~4.17. 9주간의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을 마치고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17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제65기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 수료식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민간경력자에서 신임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공직 자세 확립과 정책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또한, 선배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한 가운데 과제 수행과 토론 등을 통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였으며, 부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정책보고서 실습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58명의 신임사무관들은 20일부터 총 26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용된 권숙현 사무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법무법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처음 시도된 온라인 교육이었으나 교육생과 교직원 모두 한마음이 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신임사무관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는 포용적인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우리의 방역행정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료를 앞두고 교육생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다.

7급 신규공무원, 합동 온라인 입교식 개최

—— 정세균 국무총리, 영상 축하에서 “공무원 역량 중요성” 강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민간경력자, 지역인재, 공채시험 합격자 등 다양한 경로로 선발된 7급 신규공무원 344명을 대상으로 4월 20일 합동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5월 15일까지 4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민간경력자 57명, 지역별 대학 추천 성적우수자 140명, 공채시험 합격자 147명 등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균형을 고려해 다양하게 선발된 7급 신규공무원에 대한 합동 기본교육과정이다.

특히 이날 입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축하를 전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중단 없이 기본교육을 이어가려는 노력에 의미를 더했다.



[7급 신규공무원 합동 온라인 입교식]

정 총리는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세계적 수준의 방역을 갖춘 것은 공무원 역량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 삶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규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정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 기간부터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지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가인재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과정 역시 오프라인 집합 교육 못지않은 참여와 집중도를 위한 실습교과를 편성해 운영한다.

우선 교육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하도록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참여형 게임과 발표, 토론방식을 적용해 교육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밖에도 현업에 필요한 업무 프로그램과 보고서 작성 실습 등을 확대하여, 부처에 배치되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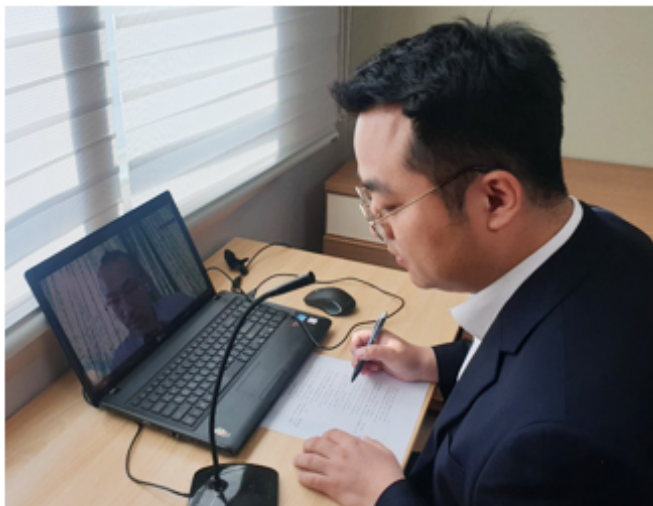
4주간의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는 37개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되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 선·후배 멘토링, 교육지도도 온라인 진행>

—— 고위공무원과 예비사무관 간 온라인 교류·소통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직 내 선·후배 공무원 간의 멘토링에도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이 도입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4. 10. 과 4. 16. 두 차례에 걸쳐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고위공무원과 예비사무관 간 온라인 교류·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도입한 국장급 고위정책과정(2.18.~12.9, 64명)과 5급 신임관리자 경채과정(2.17.~4.17, 58명) 간 멘토-멘티를 지정해 소속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부처의 멘토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사무관들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장의 조직문화와 공직생활, 업무처리 방법 등을 질문했고,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예비사무관은 공직 적응에 도움을 받고, 선배공무원은 공직에 새로 진입하는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역량을 배양하는 등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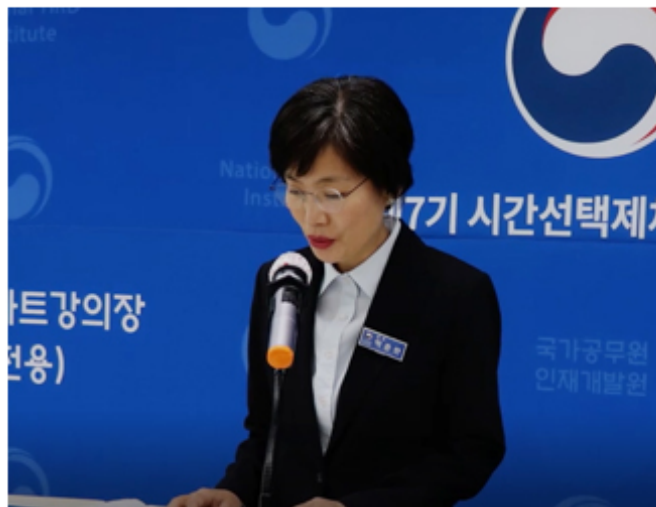
실시간 멘토링 모습

또한, 예비사무관들의 온라인 교육 과정에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습 지도교수로 참여시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도모했다. 이는 예비사무관의 보고서 작성과 국·과장의 피드백 등 현장에서의 정책기획 업무 과정을 교육과정에 그대로 옮겨 와 퇴직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원 교육에서는 선배공무원들의 소중한 정책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선배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7기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 수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직에서 많은 활약하길 기대 ——



[수료사]



[제7기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공무원으로 선발된 35명을 대상으로 5월 22일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 했다.

전년과 달리, 집합교육이 아닌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5월 11일 부터 5월 22일까지 2주간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가정 및 육아문제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이들에게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짧은 시간 근무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한 제도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실무역량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 작성법 및 공문서 작성법 등의 실용적인 교과목을 집중 편성하여 현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합교육이 아닌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입교 전 온라인 접속 사전시연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화면 송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한 사람도 결강 없이 35명 모두 수료 할 수 있었다.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생 온라인 영상 소감]

교육생들은 수료소감에서 “대부분 자택에서 강의를 수강하며,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교육을 수강하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보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해 했다.” 라고 전하고 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시간선택제채용자 공무원들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길 바라며,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며 “가정에서도 행복감을 찾는 것은 물론 일터에서도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훌륭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2주간의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사무관 340명, 공직에 첫걸음 내딛는다

— 2020년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온라인 입교식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40명을 대상으로 25일 온라인 입교식을 진행했다.

- 이번 교육은 9월 18일까지 17주간 진행되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되나,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기획 역량을 현업 수준으로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신임 사무관 양성

가치 탁월, 창의, 협력, 헌신

역량 기획력, 논리적 사고, 상황인식 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모듈 및 핵심교과

국정철학·공직가치

- 국정철학의 이해
- 정부혁신·적극행정
- 사회적 가치교육

정책기획·미래대응

- 정책과정의 이해
- 정책기획 종합실습
- 디지털 리터러시
-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공직 리더십

- 리더십 역량실습
- 소통·조정·협상 역량
- 멘토링 프로그램

● 교육방식

특강

+

실습·
참여형

+

코칭·
멘토링

+

ICT기반
교육기법

+

자기개발
학습

- 우선, 교육생의 90%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임을 감안하여 공직가치 교육에 이들의 몰입도가 높은 게임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쉽고 친근하게 공직자의 자세를 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현업의 업무과정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재현하여 부처에 가서도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이 실제 정책사례를 놓고 문제와 대안 등을 분석하여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전직 국장급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피드백 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외에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립외교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문 연구·교육기관과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정책환경에 대한 안목과 시야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이날 입교사를 통해 "정부조직의 허리인 사무관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각오를 다잡아야한다"면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 출신 공무원, 맞춤형 교육 통해 공직리더로

—— 직무지식·리더십 위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워크숍'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3년 이내 중앙부처 과장급 민간 임용자 39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민간 임용자의 성공적인 공직적응 및 역할수행에 필요한 직무지식 함양과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서 영입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임용 초기 공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데서 착안되었다. 따라서 본 워크숍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개방형 공무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조사하여 교과를 구성하고 강의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교육운영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및 집합교육 방식을 혼합(Blended learning)하였다. 1일차에는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과목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2일차에는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방형 직위 선배와의 대화 등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 환영사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격려사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워크숍 환영사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만이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개방형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 또한 격려사를 통해 "민간출신 공무원은 공직사회 혁신과 개방의 상징"이라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0년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워크숍 모습

한편 국가인재원은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직위에 특화된 맞춤형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공무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연 6회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직적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 출신 국·과장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개설

— 나라배움터 통해 '개방형직위 공직입문과정' 첫 제공 —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를 통해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를 위한 공직입문과정'을 7월 15일부터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민간 출신 국·과장이 임용 초기 민간과 다른 공직문화, 생소한 업무처리절차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집합교육 제한, 부처 현안 대응 등 바쁜 일정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이번에 처음 개설했다.

교과 구성은 개방형 직위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확정했으며,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 1시간 이내로 일반 강의형, 보드형, 드라마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했다. 교육을 통해 공직문화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를 이해하고, 조직관리 및 현업 수행을 위한 기초 직무지식과 현안대응 스킬, 공직적응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온라인 개방형직위 공직입문과정 교과 구성현황》

기본자세(4과목)	기초직무(5과목)	현안대응스킬(4과목)
①정부와 공직의 이해	⑤정부재정과 예산	⑩국회대응
②국정철학	⑥법령체계와 입법절차	⑪정책홍보
③공직가치	⑦인사·복무 제도	⑫정책프로세스
④적극행정	⑧성과평가 가이드	⑬공직적응 노하우
	⑨온나라시스템 이용 가이드	

이번 과정은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수강 가능하며, 빠른 공직적응을 위해 개방형 직위 임용 이후 3개월 이내 수강하도록 했다. 본인 희망 시 언제든지 재수강이 가능하며, 교과 수강 후 지정 강사와의 온라인 질의·응답, 심화 콘텐츠 추천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과정 학습창

박춘란 원장은 “민간 출신 우수 인재가 하루빨리 공직에 적응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은 이 밖에도 개방형 직위 공직자의 리더십 배양 및 기존 공무원과의 활발한 교류·소통을 위해 '신임 국·과장 과정*',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사무관 정책교육,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

— 실제 정책 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보고서 실습 등 진행 —

실제 정책사례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책사례 학습 및 이슈 토론 등을 바탕으로 정책보고서,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해보는 등 예비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교육이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실제 중앙부처 사무관의 업무를 간접 체험·학습하는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교과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대상 신입관리자과정에 본격 도입했다.

이번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교과는 기존 정책교육이 현장과 다소 동떨어져 이론에 치우쳐있다는 의견에 따라 실제 현장의 정책과정을 학습·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사무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역량을 향상 시키고, 예비사무관들이 부처에 처음 배치되더라도 시행착오 없이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와 흐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실무 경험이 없는 예비사무관들에게 실제 정책을 담당한 중앙부처의 과장 또는 사무관이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직접 '문제 인식부터 정책방안 마련, 법령 제·개정, 예산안 수립 및 홍보·집행 등 후속조치'에 이르는 전체 정책과정에 대해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후 예비사무관들이 가상의 정책담당자가 되어 정책사례의 실제 쟁점과 이슈에 대해 검토·토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정책보고서를 작성해 본다. 이때, 본인의 정책보고서를 활용하여 보도자료까지 작성해봄으로써 국민에 대한 정책홍보와 소통의 중요성까지 학습하게 된다.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 정책담당자 강의 및 쟁점토론

아울러, 정책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 출신 정책지도교수(Facilitator ; FT) 들이 토론과 실습을 개별 지도하며, 실습한 보고서에 대해 세부 피드백도 제공한다. 작년 하반기에 정책역량을 기준으로 선발된 12명의 정책지도교수들은 교육기간 정책실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물론, 공직멘토로서 예비사무관들을 지도한다.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 보고서 실습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개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과는 8월 현재 4번째 사례까지 진행되었으며, 교육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 역시 확인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예비사무관들은 정책담당자 강의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 덕분에 현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책지도교수가 진행하는 토론과 보고서 실습에 대해서는 "다양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토론을 이끌어주셨다."면서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고, 교수님의 개별 지도를 받으며 보고서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평가하였다.

현장과 실무 중심의 정책교육을 통해 현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고, 정책입안자로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서로 다른 부처에 배치될 예비사무관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춘란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가인재원의 역할은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참여·실습형 교육과 다양한 부처 간 협업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면서, "이번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교육은 그 첫 시작으로, 앞으로도 교육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방법을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흐름도>



5급 사무관 승진 교육, 부처별 맞춤형으로 개편

— 선택 심화교과 도입으로 현장·실무형 중간관리자 역량 기대 —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

<종전 : 강의 위주>

공통
 • 정책기획 이해
 • 정책사례 연구
 • 정책기획 피드백
 • 역량 개발계획 수립
 • 리더십 역량 이해
 • 리더십 역량 실습

기본 교과

• 정책과정 이해
 • 역량 개발계획 수립

• 정책보고서 작성
 • 리더십 역량 이해

선택

정책기획 역량

리더십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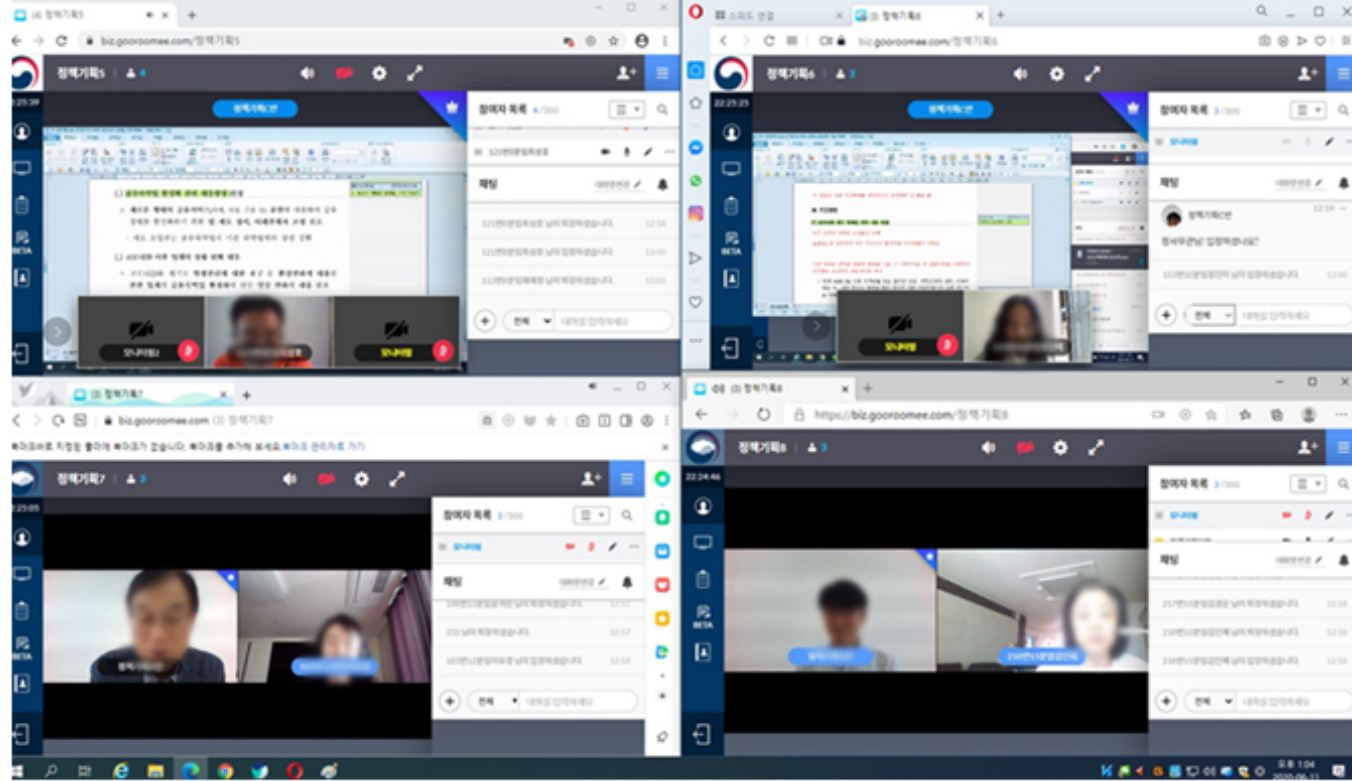
심화 교과

• 정책담당자 실제사례 특강
 • 보고서 실습 및 피드백

• 정책담당자 리더십 사례 특강
 • 역량 실습 및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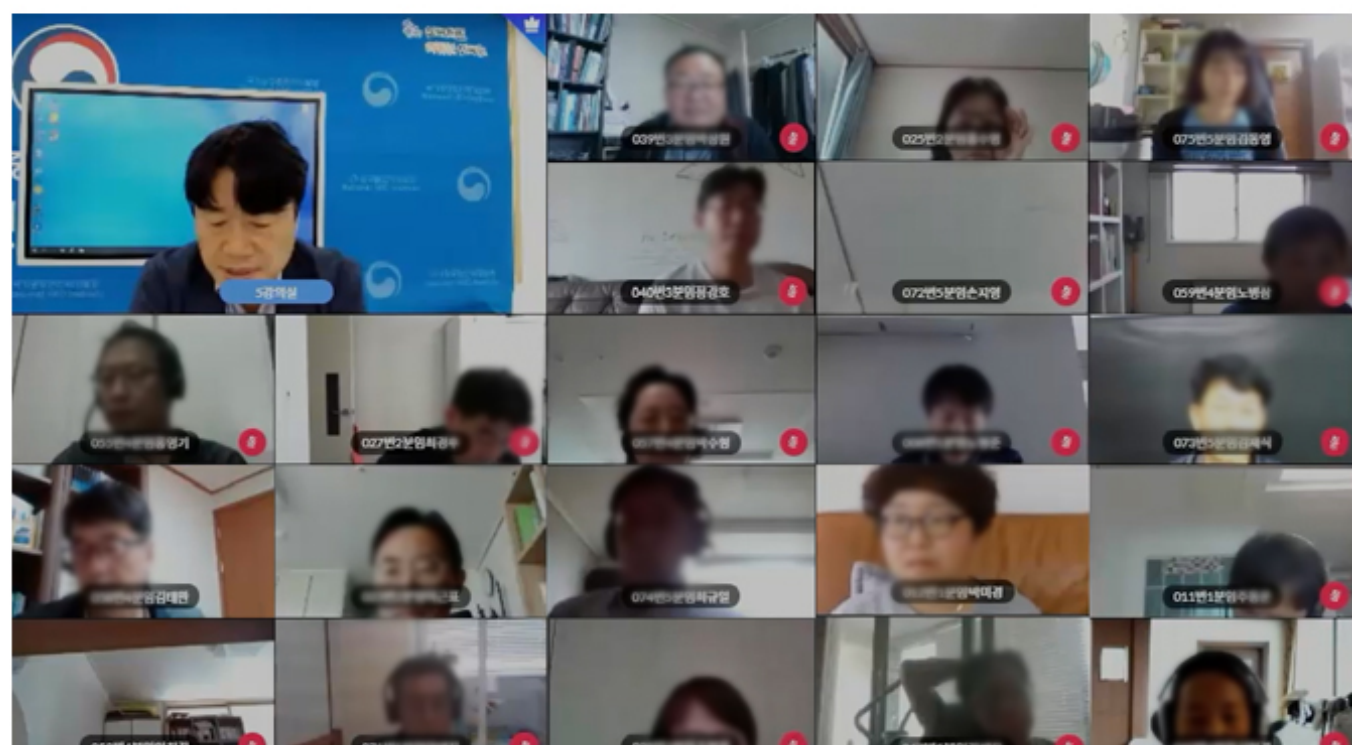
- 국가공무원 5급 승진임용 예정자 교육과정이 부처별 맞춤형 역량교육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 기존 일방향 강의 중심에서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과 실무 역량 향상의 심화교과가 도입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중간관리자로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5급 승진임용 예정자 교육과정'에 정책기획과 리더십 교과를 개설, 선택하도록 한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 5급 승진임용 교육은 국가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 6회, 5주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 그동안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평균 근무경력 10~30년, 직렬 평균 19개로 소속기관이나 보직경로 등이 다양한 교육생에게 공통과목으로 교육하는 등 교육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교육생 의견 수렴 및 자체 성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 5급 승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책기획과 리더십 심화교과로 나눠 각 부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본교과는 공통 이수하고 심화교과는 정책기획과 리더십 교과 중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미리 협의 지정해 선택, 실습과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다.
- 정책기획 교과는 정책담당자의 실제사례 특강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고 정책기획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국가인재원이 선발한 '정책FT(Facilitator)*'와의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 정책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인재원이 선발한 학습 지도교수



정책 기획 실습 및 피드백

- 리더십 교과 과정은 정책담당자의 적극행정 등 우수 사례 특강과 역할연기, 집단토론 등 실습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얻는 과정에서 정부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십 역량을 습득한다.



역량 실습 및 피드백

-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정책기획 교과를 선택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관은 "실제 부처 정책 담당자의 현장감 있는 정책노하우 특강, 실습과제 작성 및 1:1 피드백을 통해 업무 복귀 후 정책기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 리더십 교과를 선택한 농촌진흥청 소속 사무관은 "성과와 실패 등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학습하고, 발표·역할연기·집단토론 등 실습과 피드백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조직 내 핵심인재로서 5급 승진임용 예정자의 리더십 및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 교육생이 함께 참여하는 실습형 교육을 통해 부처 간 소통 및 협업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부처별 필요역량이 차별화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성과분석을 실시해 관련 교육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5급 승진관리자과정」 개편 전후 비교 (예시)

- (정책기획) 22H→58H, (리더십) 38H→41H으로 시간 및 실습·피드백 확대

<19년 까지>

교과목	22H
정책기획의 이해 I	3H
정책기획의 이해 II	4H
정책기획 피드백	2H
정책사례 연구 I	3H
정책사례 연구 II	3H
분임 정책연구 발표 및 피드백	7H

교과목	38H
역량 사전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2H
자기개발계획 피드백	3H
관리자 리더십 I	3H
관리자 리더십 II	4H
관리자 리더십 피드백	2H
가치 중심 조직문화의 이해 I	3H
가치 중심 조직문화의 이해 II	4H
역량교육 이론	3H
역량실습	14H

선택 →

<20년 이후>

정책기획 교과목			58H
정 책 기 획	정책· 리더십 공통	정책기획의 이해(이론·사례 연계)	3H
		정책사례 특강(교육부)	4H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2H
		보고서 작성법	3H
		분임 정책연구(계획서 및 피드백)	3H
		분임정책연구 발표 및 피드백	7H
		정책기획 심화	정책기획 실습 및 질의·응답
	실습과제 보고서 피드백		3H
	정책사례 특강(문화체육관광부)		4H
	정책기획 실습 및 질의·응답		3H
	실습과제 보고서 피드백		4H
	실습과제 보고서 1:1 피드백		5H
	정책기획 실습 종합 피드백	2H	
리더십 교과목			41H
리 더 십	리더십· 정책 공통	역량 사전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2H
		자기개발계획 피드백	2H
		관리자 리더십	3H
		역량이론 이해	3H
		가치 중심 조직문화의 이해Ⅰ	3H
		가치 중심 조직문화의 이해Ⅱ	4H
		리더십 심화	유형별 관리자 리더십
	사례기반 리더십 학습 및 피드백		4H
	관리자 리더십 피드백		2H
	역량실습(발표·역할연기·집단토론)		10H
	역량실습 1:1 피드백	5H	

공공HRD 우수강사 풀 공유, 공동활용에 나서

—— 나라배움터 우수강사정보 커뮤니티 개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4월27일부터 각급 교육훈련기관간 우수강사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우수강사풀에는 민·관교육발전협의회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출강하는 강사 중 강의평가 및 만족도가 높은 약 220여명을 추천받아 포함하였다.

특히, 공동활용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나라배움터에 “우수 강사정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강의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강사 정보를 공유하였다.

그간 국가인재원은 국내 유수의 민·관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공공분야 HRD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이번 “우수강사 풀 구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의회 회원기관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기획·추진되었다.

박춘란 원장은 “‘융합’, ‘연결’, ‘소통’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국가인재원이 공공HRD 허브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인재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기관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국가인재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신 HRD 트렌드 및 민간의 우수 교육과정과 강사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1988년부터 민·관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해왔다. 현재 국가 42개, 지방 24개, 공공 28개, 민간 16개 기관 등 현재 1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강사정보 풀 공유·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공공HRD콘테스트」, 「글로벌 HR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공공HRD의 우수성과를 대·내외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독수 인재개발
다독한 인재원

우수강사 정보공유 서비스 개시

· 팝업창 개시기간: 4/27 ~5/26

· 대상: 민·관 교육발전 협의회 회원 기관

(우수강사 정보 공유 희망 기관에 한함)

· 정보제공 경로: 나라배움터 우수강사 정보 공유 커뮤니티

- 커뮤니티 바로가기

Click



나라배움터 | 커뮤니티

지역주민에 온라인 학습 서비스 대폭 확대

— 교육 대상 확대 및 콘텐츠 강화, '2020 나라배움터 빌리지' 개시 —

지역주민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배움터 빌리지(Village)*'의 교육 대상과 학습 콘텐츠가 대폭 확대된다.

*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으로, 나라배움터 빌리지는 나라배움터 내 지역주민 대상 특화된 학습 콘텐츠 제공



[나라배움터 빌리지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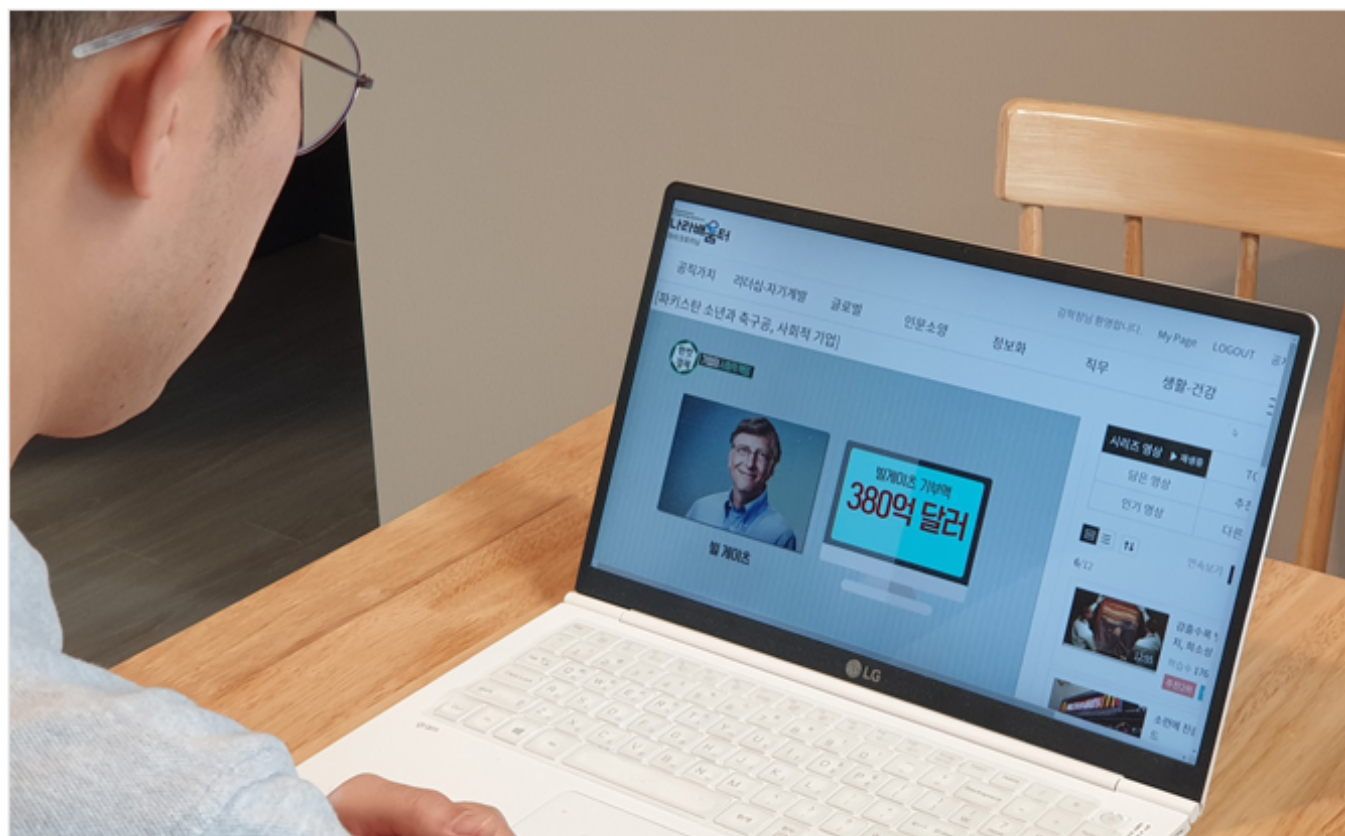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러닝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2020년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충북 진천·음성군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어학, 정보화 과정에 인문소양, 생활건강 등 1천여 개의 과정 학습을 추가로 제공한다. 필요한 내용만 쉽고 빠르게 10분 이내 학습이 가능한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 과정 약 1만2천 편과 오디오북 등 4천632권의 전자책 등 나라배움터가 갖고 있는 모든 학습 콘텐츠도 서비스된다.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대상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	충청북도 취업준비생 100명	충북 진천·음성군 주민 300명
제공 콘텐츠	어학 118개 과정	어학·정보화 174개 과정	어학·정보화·인문소양 등 1천여 개 과정 / 마이크로러닝 1만2천편 / 전자책 4,632권

[연도별 나라배움터 빌리지 교육 대상 및 제공 콘텐츠]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8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 학습 118개 과정을 제공하는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작년에는 충청북도 취업준비생 100명에게 어학, 정보화 분야 온라인 학습 174개 과정을 제공했다.

올해는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추천 받아 연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이러닝 학습 전 과정을 PC나 모바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으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도서상품권 등 경품도 지급한다.



[나라배움터 빌리지를 통해 학습하는 모습]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학습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NHI명예기자 공모전 당선작 발표

— 교육생·지역주민·교직원 수기 공모 —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아이템 공모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6월 1일 「나도 NHI(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명예기자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과 함께하는 인재원, 소통하는 인재원이라는 신념 아래 올해 처음 교직원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도 NHI 명예기자 공모전」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으며, 총 17편이 접수되었다.
- 특히, 코로나19로 대면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진천·음성군 주민들을 위해 개설한 '2020 나라배움터 빌리지*(이러닝)' 과정 수강생 작품이 10편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참여 열의가 높았다.
*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으로, 나라배움터 빌리지는 나라배움터 내 충북 진천·음성군 주민300명 대상 특화된 학습 콘텐츠 제공
- 우수작에는 「배움을 집안에서」, 「현재 우리의 시간은 따로 또 같이」, 「이제는 K-인재다」 등 3편이 선정되었다.

작품명	주요내용	성명
배움을 집안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연수 기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즐거움	박시원 (나라배움터 빌리지 교육생)
현재 우리의 시간은 따로 또 같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학습하며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소감	신순영 (나라배움터 빌리지 교육생)
이제는 K-인재다	디지털 패권시대,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한 K-인재 양성 아카데미로서의 역할 수행	서한순 (국가인재원 리더십개발부장)

- 「배움을 집안에서」는 나라배움터 빌리지의 마이크로러닝, 어학클래스, 전자책, 열린강좌 코너 속 1만 8천여 개 콘텐츠 중에서 관심분야를 골라 학습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 「현재 우리의 시간은 따로 또 같이」는 나라배움터 빌리지의 부모교육 콘텐츠 및 오디오북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익하였다고 했다.
- 「이제는 K-인재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적·융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춘란 원장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개설한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택트(Un-tact) 사회에서 상시적·비대면 교육 플랫폼으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라배움터 빌리지의 교육 대상과 학습 콘텐츠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당선작 3편은 국가인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훈련정보지인 Public HRD 여름호와 홈페이지 웹 소식지인 NHI Live에 게시할 예정이며, 그 밖에 다른 응모작들에 담겨진 국가인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국가인재원은 지난 7월 2일, 상반기 성과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국가인재원은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몰입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성과점검 회의는 그동안 진행된 교육과정 및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춘란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교직원의 노력으로 실무·현장 중심의 정책기획교육 도입, 부처별 요구역량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기획-리더십 선택형 교과운영,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 등 많은 혁신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국가인재원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년 상반기 성과점검 회의

2020. 7.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목 차	
1. 리더십개발부	
① 상반기 교육운영 성과 종합	4
② 상반기 교육운영 실적	5
③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운영 계획 변경	7
④ 신임관리자과정(정책) 개선	11
⑤ 신임관리자과정(경제) 개선	13
⑥ 6급이하 신규자과정 운영 내실화	15
⑦ 교원장학과정 개선 추진	21
⑧ 신임국장신임과장 리더십 역량 강화	27
⑨ 교육생 중심의 5급 승진관리자과정 개편 운영	33
⑩ 고공관리자과정 교육과정 재검토	35
⑪ 국정실적·시책교육 운영	37
⑫ 참여학습 확대를 통한 직무역량교육 내실화	38
2. 연구개발센터	
① 온라인 콘텐츠 개발 확대	40
② LMS(On-line) 콘텐츠 활용 및 품질 강화	42
③ 최신 ICT수요에 반영한 정보화 교육 강화	44
④ HRD 연구 추진	46
⑤ HRD 컨설팅 및 어브 기증 강화	48
3. 글로벌교육부	
① 공직자 글로벌 역량교육 강화	50
② 외국공무원 교육 확대 및 수료생 관리	51
③ 전략적 네트워크 관리 확대	53
4. 기획부	
① 교육과정 재검토 위한 교육지원 체계 개선	55
② 교육과정성 강화에 위한 교육정책사업 개선	56
③ 국가인재원 교육인력 역량강화 지원	60
④ 과학인 교육환경 조성	68
⑤ 국가인재원 홍보 강화	65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하반기 국가인재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과정 운영 등 핵심 테마별 성과 분석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혁신이 내재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인사말 전문>

○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가족 여러분, 박춘란입니다.

○ 2020년이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반년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 지난 1월, 우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대응역량을 갖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 하지만 모든 부서가 교육운영을 준비하고 있던 2월, 갑작스러운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입국한 우한교민 수용을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기획부는 진천본원에서 24시간 비상근무하며 교민생활을 지원하여 초기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연구개발센터는 과천본원에서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차질 없이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집합교육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였으며, 교육운영진 공백에 대비하여 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운영역량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국가인재원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50여개 교육기관에 공유하여 공공 HRD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45개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교육 및 온-오프라인병행으로 진행되었고, 약 2,500여명의 교육생이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 이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정책기획역량 향상을 위하여 실무중심으로 정책기획교육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현장의 정책실무자를 통해 실제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생생한 정책과정과 업무 노하우를 학습하고, 수차례 정책보고서를 직접 써보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부처에 가셔도 바로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5급 승진관리자 과정은 각 부처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정책기획과 리더십으로 선택형 교과를 이원화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매번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 마다 지속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뒤이어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육운영진과 원내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공 HRD 및 글로벌 교육허브로서의 역할도 중단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 게이미피케이션, 정책사례 개발 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에 대해 맞춤형 HRD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입국제한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 상황 악화에도 각 국가들과 적극 소통·협업하고 선제적으로 온라인 교육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외국공무원 교육운영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성공적 공직적응에 필요한 직무지식 함양과 리더십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온라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작하고, 민간임용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저는 이 모든 실적과 성과들이 개별 부서 하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인재원의 모든 부서들이 자신의 업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였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 집합교육보다 몇 배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실시간 온라인 환경에서도 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인재원 교직원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지만 우리 국가인재원의 비전인 '좋은 인재개발 따뜻한 인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 하반기에 집합교육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과는 달리,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 이런 때일수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인재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공공 HRD 콘테스트를 비롯하여 하반기에 예정된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하여 상황별 시나리오 등 만반의 준비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각 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깊은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교과목, 교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넥스트노멀에도 대응하여 집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 국가대표 공무원 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등 '좋은 인재개발'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 동시에 우리는 '따뜻한 인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세 배가량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이렇듯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 교육을 운영하거나 업무를 하시면서 타 부서와 상의할 일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인재원 구성원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업무 내·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따뜻한 인재원 만들기 직장교육, 인재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 여러 소통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또한 교육과정과 방법의 연구·개선을 위한 원내 교수님들과 교육운영진과의 소통의 장도 체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같은 것이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혁신적인 문화'가 필요합니다.

○ 콜럼버스의 달걀, 뉴턴의 사과처럼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새로이 시작하는 교직원 혁신아이디어 공모가 작은 혁신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발전해나간다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교육생 아이디어 제안도 적극 홍보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고, 팀 과제 등 수행 중 제시된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는 시상하는 한편, 실제 관련 부처 정책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난 상반기 차질 없는 교육운영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많은 피로가 누적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 그간 실시간 온라인교육 전환, 재택근무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앞으로도 계획했던 교육과정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주시기 바라며,

○ 20년 하반기 새로운 시작을 여는 7월을 맞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아울러,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국가인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재택근무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방역수칙 준수, 복무관리 등에도 항상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인재원 모든 교직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 우리가 얼마나 역량 있는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 남은 6개월도 한 마음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국가인재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어드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대학교와 MOU 체결

— 4차 산업혁명시대 정책대응역량을 갖춘 국가핵심인재 육성에 뜻 모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15일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내용은 △인재개발 관련 상호 협력 △교육기자재 및 교육과정·연구시설 등의 상호이용 △교육용 사이버 콘텐츠 지원 및 우수 교수요원 간 교류협력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활용 등이다.

박춘란 원장은 “국가인재원은 그간 4차 산업혁명시대 공직사회의 정책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교육과정에 미래핵심기술(AI, 데이터분석, 코딩 등) 교과목 편성, 실무중심의 정책사례와 심화학습을 통한 정책기획 교육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2019년 과학기술부 선정)이자 국립대 최초 AI로봇학과신설 등 차세대 인재 육성 노하우를 보유한 충북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인재원이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적이고 유능한 국가핵심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6년 9월 경기도 과천에서 충북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한 이래

충청북도와 국가인재원 70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충북 관내 식자재 사용, 푸드뱅크 기부, 충북지역 주민 대상 나라배움터 빌리지 사업(이러닝)*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으로, 나라배움터 빌리지는 나라배움터 내 지역주민 대상 특화된 학습 콘텐츠(1천여개 교육과정 및 마이크로러닝, 오디오 북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 국가인재원과 충북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북대 간 체결된 MOU를 통해 자치단체 - 지역대학 - 공공기관-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지역혁신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가 만든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공모전 개최

—— 5분 내외 학습자료 직접 제작해 공유, 매달 우수작 선정 ——

필요한 내용만 쉽고 빠르게 5분 내외로 학습이 가능한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 공개모집 이벤트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현직 국가공무원이 업무 중 습득한 지식과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마이크로러닝으로 직접 제작해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마이크로러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는 이달 3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매달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국가인재원장상과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 작품 주제는 공직가치·직무·리더십 및 조직·개인관리 등 업무 관련 내용이나 공유 가치가 있는 유용한 지식·정보·경험·노하우 등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다. 공모분야는 『자체제작영상』과 『시나리오』로 나눠 직접 촬영·편집한 5분 정도의 마이크로러닝 영상은 『자체제작영상』분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나리오』분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나라배움터(e-learning. nhi.go.kr)’ 내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매달 중순 사전 적합성 심사*와 후속 경쟁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 (자체제작영상) 단순 홍보용이나 저작권·보안에 위배 되는 영상 제외
(시나리오) 영상으로 제작이 어렵거나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제외

입상작은 국가인재원의 정규학습과정으로 반영하는 한편 나라배움터에 게재되며, 시나리오는 향후 콘텐츠 제작 소재로 활용될 계획이다. 사전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모든 작품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시간도 인정(자체제작영상 10시간, 시나리오 5시간)된다.

이번 공모전은 일과 학습의 결합 추세와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의 제약에 따른 온라인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보강이 필요해 기획됐다. 현직 공무원이 본인의 지식·정보 등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최초의 방식으로, 이제는 공무원이 단순히 교육의 소비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공급자로 역할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배움터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나라배움터 공지사항 바로가기 →

공모전

내가 만든 마이크로러닝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만의 특별한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시학습도 인정 받고 나라배움터 우수작에 도전해보세요!



대 기 부	상 간 문	국가공무원																		
		2020년 8월 3일 ~ 11월 30일 (월별 진행)																		
		자체제작영상(마이크로러닝) 또는 시나리오(영상제작 제안서) (자체제작영상) 50Mb이내 MP4, 5분 내외 / (시나리오) A4 2~3장																		
주 제		개인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지식·정보·경험·노하우 등 모든 분야																		
참 가 방 법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에서 '내가 만든 마이크로러닝' 공모 이벤트 배너의 자체제작영상 또는 시나리오 등록 메뉴를 통해 제출																		
상 시 학 습		(자체제작영상) 1건당 10시간, (시나리오) 1건당 5시간 ※ 적합성심사에 통과한 모든 작품에 대해 상시학습인정(연간 최대 50시간)																		
시 상		매월 분야별 우수작 선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분야</th> <th>구분</th> <th>인원</th> <th>시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체제작영상</td> <td> 으뜸상</td> <td>1명</td> <td>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10만원상당)</td> </tr> <tr> <td> 버금상</td> <td>3명</td> <td>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3만원상당)</td> </tr> <tr> <td rowspan="2">시나리오</td> <td> 으뜸상</td> <td>1명</td> <td>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10만원상당)</td> </tr> <tr> <td> 버금상</td> <td>3명</td> <td>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3만원상당)</td> </tr> </tbody> </table>	분야	구분	인원	시상 내역	자체제작영상	으뜸상	1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10만원상당)	버금상	3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3만원상당)	시나리오	으뜸상	1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10만원상당)	버금상	3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3만원상당)
분야	구분	인원	시상 내역																	
자체제작영상	으뜸상	1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10만원상당)																	
	버금상	3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3만원상당)																	
시나리오	으뜸상	1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10만원상당)																	
	버금상	3명	국가인재원장상 및 상품 (3만원상당)																	
		※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만원 전송(분야별 10명)																		
수상작발표		매월 둘째 주 나라배움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문 의 처		[043] 931 - 6532~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공유

—— 제71회 민·관 교육발전 실무 협의회 개최 ——

- 국가인재원은 민·관 교육기관 간 HRD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난 7월 2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민·관 교육발전 실무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 민·관 교육발전 실무 협의회는 민·관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기관 상호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인재원에서 71회째 운영하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민·관 간 합동 협의체로서,
-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78명의 민·관 교육발전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기관들의 애로사항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언택트 관련 최신 HRD트렌드와 우수 사례 등을 상호 공유했다.
- 주요 프로그램은 HRD 전문가 특강, HRD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한 팬데믹 시대 언택트 러닝 관련 설문 결과 안내, 민·관 우수 HRD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민·관 교육발전 협의회 회원 기관 관계자들 간 팬데믹 시대의 교육 운영 전략과 AI시대의 인간적 감수성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場)이 되었다.





배움을 집안에서

— 나라배움터 빌리지 수강 —

나라배움터 빌리지 교육생 박시원

갑작스럽게 세계를 덮친 바이러스 공포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던 미래 사회의 모습을 더 빠르게 우리 일상으로 진입시켰다. 비대면 원격학습 역시 변화된 모습의 일부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초·중·고 학생까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나조차 비대면 학습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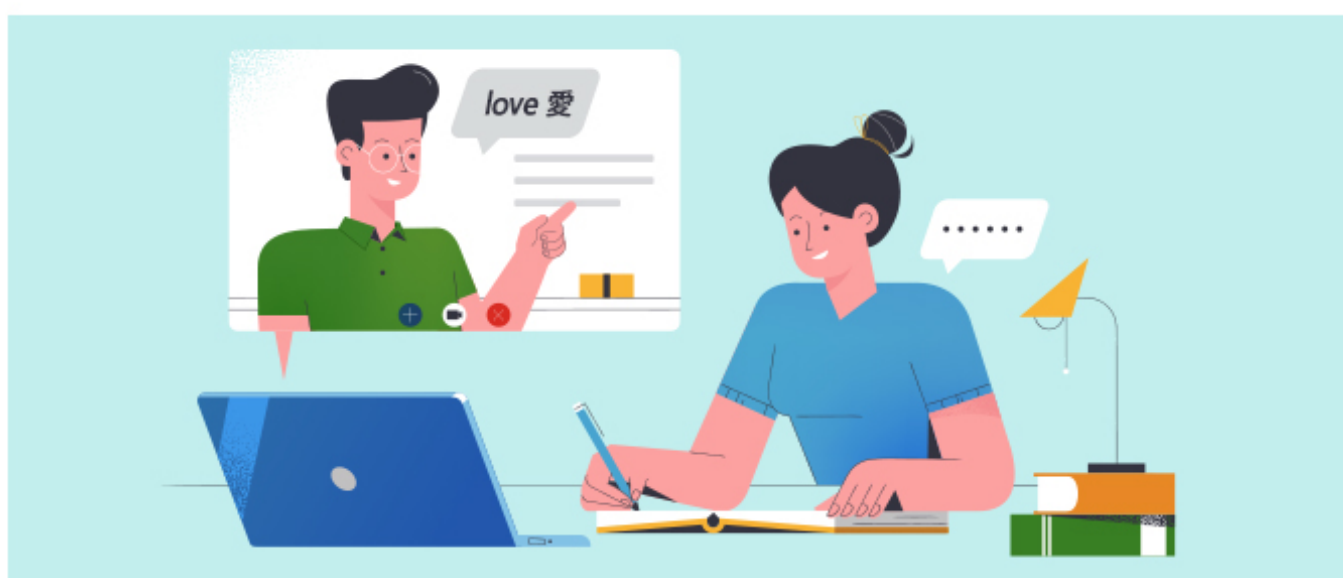
[나라배움터 빌리지 메인 화면]

음성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배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웠던 내게 3월에 지원한 배움 강좌의 무기한 연기 통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들던 일상에 더 큰 우울함을 보탬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연수 기회는 초초하게 배움을 열망하고 있던 내게는 희소식이였다. 안내 메일을 받고 '나라배움터 빌리지'의 온라인 교육 신청에 발 빠르게 지원했다. 연수 자격을 부여받고 2020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나라배움터 빌리지 사이트에 접속했다.

나라배움터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는 '마이크로러닝', '어학클래스', '전자책', '열린강좌' 네 분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한 영역씩 사이트를 둘러보며 무엇을 수강할까 고민하는 과정마저도 큰 기쁨이었다.

마이크로러닝의 콘텐츠는 인문, 과학, 취미생활, 건강 등 주제가 매우 다양했다. 마이크로러닝 아이콘을 클릭하니 7개의 공직가치, 리더십·자기개발, 글로벌, 인문소양, 정보화, 직무, 생활·건강 범주로 나뉘어 있어서 관심 분야를 찾아 가기도 쉬웠다. 10분 이내로 제작된 동영상 수업은 짧은 시간 내에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비대면 수업인데도 직접 강연장을 찾아가 강사와 소통하며 배우는 기분마저 들었다.

어학클래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한자, 그 외 무려 15개나 되는 기타 외국어 강좌가 있다. 하나씩 맛보기 강좌에 들어가 강사들의 강의 방법을 살펴보면 내게 잘 맞는 강의를 골랐다. 평소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던 막연한 생각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사실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거리와 시간 관계상 어학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이제 나와 싸움만이 어학 실력을 키우는 핵심 문제가 될 뿐이다.



전자책 영역을 클릭하는 순간 환호성이 나왔다. 도서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고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주며 e-book을 간간 구입하던 내게 독서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도 남은 충분한 분량의 도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다. 비행기 아이콘을 누르니 해외여행을 당장 떠나지 못해도 세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앉아서 즐길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도 오디오북은 최근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던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불면의 밤에 불을 끄고 조용히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들으며 잠드는 호사도 누릴 수 있었다. 신작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기대해 본다.

열린 강좌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현재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학습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겠지만 나와 같은 외부 학습자 역시 도움이 될 것 같다. 평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국가 정책이나 행정, 그리고 각 시설과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는 자료들이 있다. 4차 산업 시대에 돌입하며 이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할 때라는 사실은 막연히 알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했는데 이 기회에 배우면서 천천히 백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일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을 칭송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 행정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우리나라의 역량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나라배움터 빌리지를 통해서도 그 잠재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며 다양한 비대면 학습 콘텐츠 개발을 계속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준비아말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바이러스 패닉을 비대면 학습으로 의연하게 이끌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라배움터 빌리지에 입문하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나라배움터 빌리지 사이트를 여행하는 즐거움은 답답하게 집안에 갇혀 지내던 나의 일상에 변화를 일으켰다. 'Better Tomorrow with Knowledge'라는 나라배움터의 슬로건처럼 나에게 비대면 학습의 기회는 '더 나은 내일을 지식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품게 했고 밝은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요리와 건강 프로그램 등 배움의 열정에 음성군은 늘 친절하게 응답하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올해는 비대면 연수로 제공된 '나라배움터 빌리지'에서 어학 강좌를 필두로 8월까지 열심히 배우며 알찬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이제는 K-인재다

국가인재원 리더십개발부장 서한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일찌감치 불확실성의 VUCA¹⁾시대 도래를 진단하고 향후 30년 그랜드디자인의 비전으로, “좋은 인재개발, 따뜻한 인재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탁월 · 창의 · 협력 · 헌신의 4대 핵심가치를 지닌, 최고수준의 전문성과 직무역량 · 지성과 품격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정의했다.

뷰카 시대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온 세계인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체험 중이다. 국정운영의 전략적 파트너인 공직 리더에게도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VUCA시대 “좋은 인재”로 실제화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하나의 사례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Godot)를 기다리며”는 작가 베케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숨어 지내던 자신의 상황을, ‘인간의 삶속에 내재된 기다림’으로 작품화 한 것이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주인공은 50년 동안이나 오지도 않는 ‘고도’를 막연히 기다리는데, ‘고도’는 끝내 등장하지 않은 채 막이 내린다. 작가는 ‘고도’의 정체에 대해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지 않고 神 · 초인 등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작가는 전쟁 속에서 삶이란 기다림이며, 막연히 기다리는 ‘고도’라는 미지의 인물을 통해 고통의 동반자 · 희망의 나침반 또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싶었으리라!

기약 없는 전쟁 상황에서 베케트가 막연히 ‘고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코로나19국면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줄 ‘고도’ 같은 상징이 출현 해 주길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형국이다.

이제는 K-인재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바닥과 끝을 아무도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연대와 협력을 보여준 국민, 방역후방을 묵묵히 지켜온 공직자들 덕분에 세계의 표준이 되는 K방역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갖춘 K-인재가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고도’라 칭해보면 어떨까?

미국의 레너드 마커스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쟁 상황과 같은 경우 ‘메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중 보건문제 · 정치 · 경제 등 얽힌 문제를 폭넓고 복잡한 관점에서 분석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다.

4차 산업시대에 설상가상 코로나19가 변곡점이 되어 디지털 대전환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러한 메타 리더십을 갖춘 K-인재개발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까?



한국행정연구원은『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라는 연구에서 2040 사회변화를 예측하며 한국의 트렌드²⁾를 K · O · R · E · A로 정리 제시한 바 있다. 분야별 K-인재의 필요성을 잘 예언하고 있다.

한류를 주도한 BTS, 2020오스카상을 제패한 봉준호 감독, 123개 이상 국가로부터 선망 받는 방역 모범국 위상을 떨치며 K-외교로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이들이 K-인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0.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정책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방향성은 DN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에다 코로나19로 새롭게 도전하는 US(언택트 · 디지털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인간안보에 기여하고, 경제 난국 돌파를 위해 디지털 · 그린 뉴딜정책을 도맡아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보듬어 줄 그런 리더가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K-인재 아닐까?

우리인재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급거 귀국한 우한교민들의 생활격리시설로 지정되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 받았다. ‘따뜻한 인재원’ 비전에 걸맞게 존중과 배려를 기본가치로 지역 · 국가 ·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면모를 보인 단면이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이제는 “좋은 인재개발”로 그 저력을 보여 줄 때이다. 미래 KOREA 트렌드와 한국판 뉴딜정책 등 국정과제들로 보면, K-인재 개발의 방향성은 분명해졌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통적 집합교육에서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진즉 가야 할 미래였다.

디지털 컨택트가 뉴노멀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 일하는 방식 변화 속에 기존 리더십은 도전을 받고, 주저하고 더디기만 했던 기존 질서로부터의 탈피는 거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다.

K-적극행정으로 K-방역이라는 세계적 표준모델을 만들어 낸 것처럼, 디지털 패권시대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K-인재개발에 채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우리원은 “좋은 인재” 개발을 목표로 정책역량 · 디지털역량 ·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력하면서, 교육 콘텐츠 · 인프라 등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교육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容 · 人 · 環 삼위일체³⁾를 통해, 교육운영진과 수요자가 소통하는 따뜻한 인재원, 나아가 핵심 인재 양성 아카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나갈 것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한다.



1) VUCA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2017). 『Grand Design 추진 백서』. 인재개발 환경 영향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변화를 변동성(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 모호성(Ambiguity)을 들어 약자로 VUCA시대로 진단. 1990년초 미국육군대학원에서 처음 사용

2) 한국의 트렌드

한국행정연구원(2009).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2040미래 한국트렌드(K · O · R · E · A)로, 지식창출과 기술발전(Knowledge)을 주도하고, 개방성과 다양성(Open)을 갖추며, 국내외의 위협과 위기(Risk)에 대응, 친환경적 경제구조(Ecology) 및 인구구조(Aging)의 변화 등을 제시

3) 容 · 人 · 環 삼위일체

컨텐츠의 다양화(內容), 에듀테크 기반 교육운영의 전문화(人), 교육시설 및 환경의 쾌적화(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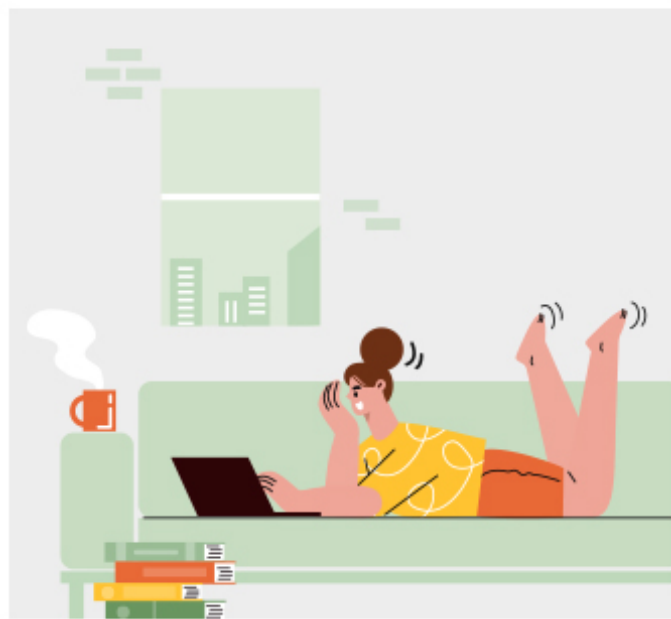


현재 우리의 시간은 따로 또 같이

— 나라배움터 빌리지 수강 —

나라배움터 빌리지 교육생 신순영

코로나19로 강제 아닌 강제 휴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직업의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면하는 직업이기에 코로나19가 터지며 나의 행동반경은 집과 마트로 좁아졌다. 작년 말부터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던 차 갑작스러운 강제휴식은 내심 반갑기도 하였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오다 보니 나만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의욕과 체력이 바닥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아니 솔직히 나의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충전이 필요했다. 강제휴식! 쉬어가도 나쁘지 않으리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못해줬던 간식도 해주고 비우기보다 채워 넣기 바빴던 냉장고도 파먹다 보니 한 두 달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하지만 3달째가 되자 행동반경이 좁은 휴식은 갑갑함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들을 챙기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책을 읽고 인터넷 검색이 다였다. 그러던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나라배움터 빌리지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를 수업을 기다리며 막연히 쉬는 것 보다 부담 없이 집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보자는 생각에 신청하였다. 며칠이 지나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홈페이지에 들어간 순간 생각보다 알차고 다양한 자료에 놀랐다.

강의는 마이크로러닝, 어학클래스, 전자책, 열린 강좌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일 먼저 마이크로러닝으로 들어가니 10분 내외의 다양한 강의가 쉽고 간결하게 되어있어 쉽게 접근하여 들을 수 있었으며 짧은 영상임에도 긴 여운을 남기며 생각의 시간으로 잡아 이끌었다.



머리 아플 것 같은 어학클래스를 건너뛰고 전자책으로 들어가니 문학, 인문, 자기계발, 여가, 외국어, 역사, 경제 등 다양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배우들이 읽어주는 오디오북은 아이들과 점심을 먹고 나른한 오후 커피를 놓고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있다 보니 마음은 고요해지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다 듣고 난 뒤 다음에 읽을 전자책은 대출하여 내 서재에 넣어 둌으로써 다음 책 읽는 시간을 예약해 놓는다. 열린 강좌에 들어가자 헌법의 이해, 개인 정보 보호, 교수학습이론과 최신 교수학습 방법 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와 서류를 만질 때 필요한 한글·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팁과 부모교육까지 알찬 강의가 모아져있었다.

생각보다 다양한 교육과 알찬 내용을 보니 가장 머리 아플 것 같아 미뤄둔 어학클래스가 궁금해졌다. 클릭해 들어간 어학클래스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 수준별로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자료까지 다운받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가장 쉬울 것 같은 강의를 골라 강사를 따라 하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몸도 자연스레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엄마의 갑작스런 영어 공부에 큰아이는 자신도 아는 단어라고 따라 말한다. 4개 부분의 수업을 맛보기로 하나씩 보고 들으니 나라 배움터 빌리지 교육의 큰 장점은 나 같이 집중력이 약한 사람을 배려(?)한 짧은 시간의 교육과 수준별, 취향별로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욕심 부리고 많은 강의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려 하기 보다는 꾸준히 하루에 한 강의씩만 들어도 괜찮을 듯싶다. 아이 공부 시간에 엄마도 함께! 아이 책 읽는 시간에 엄마도 전자책을……. 코로나 19로 인한 아이와 함께 하는 강제 휴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 교육의 기회는 우리에게 따로 또 같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나라배움터* 내 지역주민 대상으로 특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Live>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0.6.2(화) ~ 2020.6.30(화)

응답하기

< NHI Live 3월 퀴즈 당첨자 명단 >

장*임, 김*희, 손*완, 김*예, 김*수, 정*연, 유*철 님
축하드립니다.